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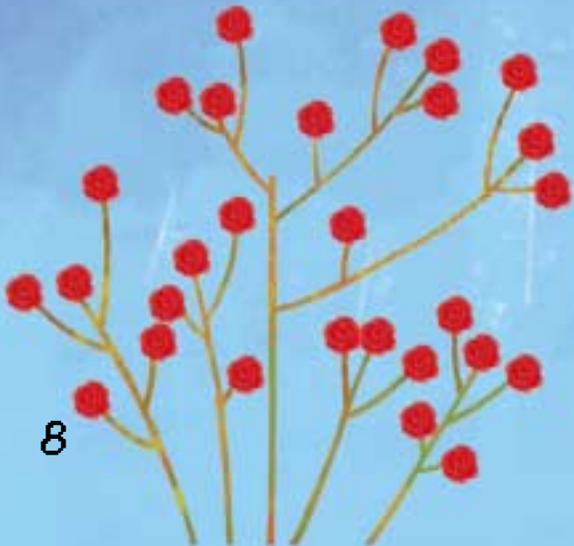
하늘을 만드신 하나님

창세기 1장 6-8절



하 나 님 하 늘

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.
하늘은 굉장히 넓어요.
하나님 마음처럼 말이에요.





해가 질 때 하늘은 빨강계 변해요. 내가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말이에요.



63쪽 비와 번개를 오려 붙여요.

“우르르~ 쿵쿵!!” 비가 올 때 하늘은 무서워져요.

비 오리는 종이

번개 오리는 종이





하지만 걱정 없어요.
다시 맑아질 테니까요.

마 음 **쑥** 암 송

여호와와
말씀으로
하늘이 지음이
되었으며
시편 33장 6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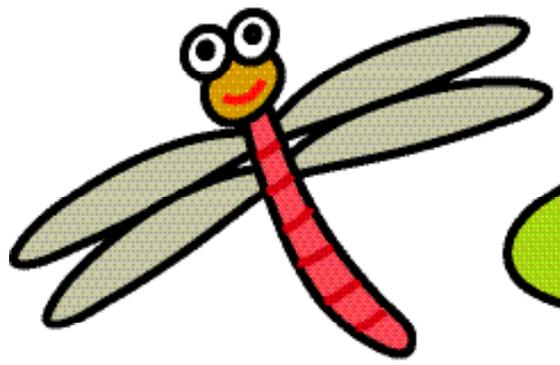
여호와와

하늘이
되었으며
시편 33장 6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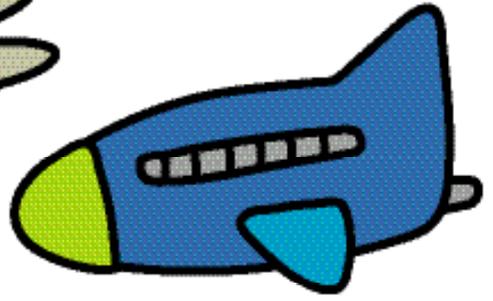


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 보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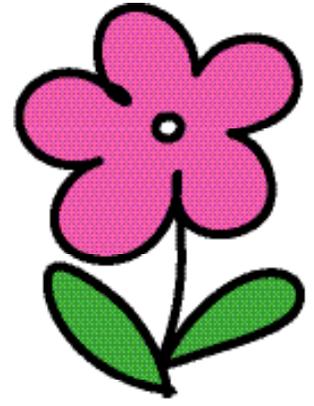
맘
맘이
생각



잠자리



비행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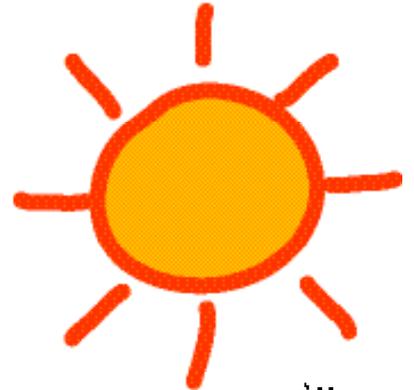
꽃



달



별



해

선생님께

부모님께